

한국식동검문화의 성립과 고조선 청동기문화

이양수

(국립김해박물관)

〈목 차〉

I. 머리말

II. 最近 研究의 動向

III. 三韓地域 出土 古朝鮮係 靑銅器

IV. 古朝鮮 靑銅器 製作技術의 系譜

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식동검문화의 성립에 있어서 고조선의 청동기문화는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조선 문화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실증적인 증명은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 북부의 고고학적 자료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점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발표에서는 삼한에서 확인되는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북부 관련 청동기를 각 시기별로 정리하고 거기에서 확인되는 형태적 요소와 제작기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조선은 청동기를 기반으로 세워진 국가이며, 고조선의 강역을 추정하는 것에도 청동기가 근거가 되고 있다.(박준형 2012). 그리고 청동기의 등장이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이 아닌 청동기 제작·분배·소유를 통제하는 지배자의 등장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삼한의 성립이 고조선의 청동기 제작기술의 수용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이 글에서의 시기구분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표를 제시한다. 이 글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김원룡의 청동기시대 후기-초기철기시대, 신경철의 삼한시대 전기 전반이다. 청동기문화를 중심으로 시기구분한 이견무의 한국식동검문화 성립기 시기한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필자의 청동기시대 만기가 일부 한국식동검문화 성립기에 포함된다.

김원룡(1989)	신경철(1995)	한국고고학강의 (2011)	이건무(1992)	본고
청동기시대 전기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요령식동검문화	전기
				중기
				후기
청동기시대 후기-초기철기시대	삼한시 대전기	전반	한국식동검문화 성립기	만가-성립기
			한국식동검문화 발전기	발전기
원삼국시대		후반	원삼국시대	한국식동검문화 쇠퇴기

〈표 1. 韓半島 南北部の 時期區分에 대한 比較〉

II. 最近 研究의 動向

고조선과 변진한에 대한 연구는 文獻史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三國史記』 「新羅本紀」의 첫 부분에 기록된 내용을 기초로 朝鮮의 遊民이 辰韓 6部를 이루는 등 遊移民의 南下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고학적으로 변진한의 유이민에 대해 주목한 것으로 李在賢(1995)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문헌사에서는 이러한 이동에 따른 문화변동보다는 ‘古朝鮮-한반도 남부의 정치체(新羅)’라는 역사적 繼承 認識에 대해 주목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노태돈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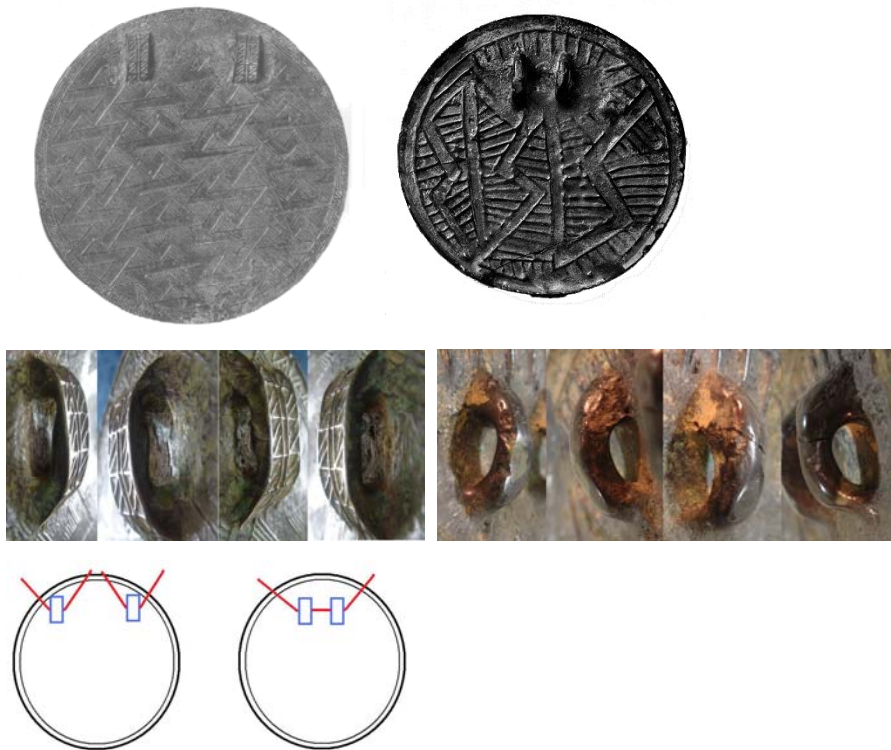
고조선 자체에 대한 연구는 주로 疆域이나 中心地 등에 초점을 두었는데, 청동기문화에 대해서는 주로 요령식동검과 연계성을 가진다는 의견을 토대로 진행되었고, 요령식동검은 고조선식동검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沈奉謹·朴恩貞 1982). 초기에는 요령식동검이 출토되는 지역이 모두 고조선이라는 인식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국 山東半島 등지에서도 요령식동검이 출토되어 그러한 생각은 수정을 요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요령식동검문화 전반보다는 요령식동검문화를 각 유형 혹은 문화로 세분하여 그 중에서 고조선과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다.

현재 고고학에서 고조선과 관련하여 가장 지지받는 의견은 十二臺營子 문화와의 관련성이다. 이에 대해 가장 최초로 주목한 金正鶴(1990)은 遼西의 朝陽 十二臺營子→遼東의 瀋陽 鄭家窪子→韓半島라는 多鈕鏡의 문화 중심축의 이동을 근거로 고조선의 세력 추이를 살폈다. 이는 李清圭(2005)와 趙鎮先(2010) 등에 의해 계승되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조진선은 기원전 6세기 十二臺營子 문화가 요동으로 확산해 鄭家窪子 유형 성립하고, 十二臺營子 문화 南洞溝 유형 및 鄭家窪子 유형, 崗上 유형을 포괄하는 것이 고조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원전 3세기 전국 燕 秦開의

침략 이후 遼東 일부는 전국 燕에 귀속되었고, 燕에 점령되지 않은 지역이 上堡 유형으로 마지막 단계의 고조선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와 유사하지만 특이한 의견으로 吳江原(2013)의 주장이 있다. 그는 고조선을 朝陽의 南洞溝 유형과 瀋陽의 鄭家窪子 유형 2개의 중심체를 가지는 이중 연맹체로 보고, 燕의 침공으로 南洞溝 유형은 연화되며, 鄭家窪子 유형이 大同江流域으로 이동하여 貞柏洞 유형을 성립시키며 尹家村 유형은 전국 燕의 영토 내 복속된 고조선 잔존세력, 劉家哨 유형 등은 토착문화와 연문화의 공존지대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글은 고조선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한반도 남부에서 고조선의 영향과 그의미에 대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필자의 연구 역량의 부족 때문에 중국 동북지역의 고조선 문화에 대해서는 그리 심도 깊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전 필자(2010b)는 이전 논고에서 多鈕雷文鏡의 비교를 통해 朝陽 十二臺營子 출토품을 모티브로 瀋陽 鄭家窪子 6512호묘 출토품이 제작된 것은 맞지만 제작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계승성을 가지지 못함을 지적한 바 있다.



좌 傳 중국(교토국립박물관 소장), 우 傳 평양(고려미술관 소장)

〈도면 1. 多鈕雷文鏡의 A군과 B군〉

중국 遼西를 중심으로 발견되는 A군은 정밀한 제작기술로 직경 12cm 이상인데 반해 요동과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B군은 상대적으로 조잡한 기술로 10cm 전후의 소형 동경이다. 또한 A군은 계

산된 製圖에 의해 幾何學的으로 문양을 구성한 것으로 중국 中原의 청동기에 자주 보이는 主文과 地文의 구성을 따르고 있으며, 정확한 제도, 多齒具 콤파스의 사용 등 높은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반면, B군은 雷文이라는 특징은 공유하고 있지만 조잡하며, 크기도 작아졌고, 鈕의 위치·磨耗된 부분 등이 A군과는 차이가 난다. 이러한 점에서 양자에 기술적 계승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遼西의 十二臺營子 문화를 고조선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찬동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재 필자의 생각이다. 특히 요서의 경우 최근 보고된 朝陽 遠台子 채집 다뉴뇌문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A군만 확인될 뿐, B군에 속하는 것은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다. 이는 燕의 요서 진출과 함께 다뉴경문화가 요동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요령식동검, 다뉴경이 고조선의 문화의 일부인 것은 맞지만 요령식동검 중 어디까지가, 다뉴경 중 어디만큼이 고조선과 관련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때문에 필자는 이 글에서 삼한에서 보이는 청동기 중 고조선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逆으로 찾아나가 고자 한다. 그리고 청동기 제작기술로서 어느 정도의 관계를 부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청동기시대 지역집단을 아우르면서 지배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청동기를 독점적으로 생산·사용하는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송기호 2003; 李清圭 2003; 박준형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삼한의 성립 역시 청동기를 독점적으로 생산·사용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삼한에서 독자적인 청동기의 제작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살펴 보겠다.

III. 三韓地域 出土 古朝鮮係 靑銅器

먼저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고조선계 청동기는 고조선의 故地인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서북부에서 출토된 청동기로서 한반도 남부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전 고조선의 청동기에 대해 요령식동검, 다뉴경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로 보더라도 요령식동검이 출토되는 범위 전체를 고조선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다뉴경이 출토되는 범위 역시 고조선을 아우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고조선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부족하고, 고조선 문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고조선 문화로 인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물론 필자 역시 고조선 문화에 대해 명확한 개념규정을 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사서에 기록을 근거로, 준왕의 남하와 같은 유민의 이동을 통해 고조선의 문화가 삼한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과 삼한의 영역인 한반도 남부와 고조선의 마지막 영역으로 추정되는 대동강유역 간에 상호 관련된 문화가 고조선의 문화일 것은 명확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 남부와 대동강유역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있는 청동

기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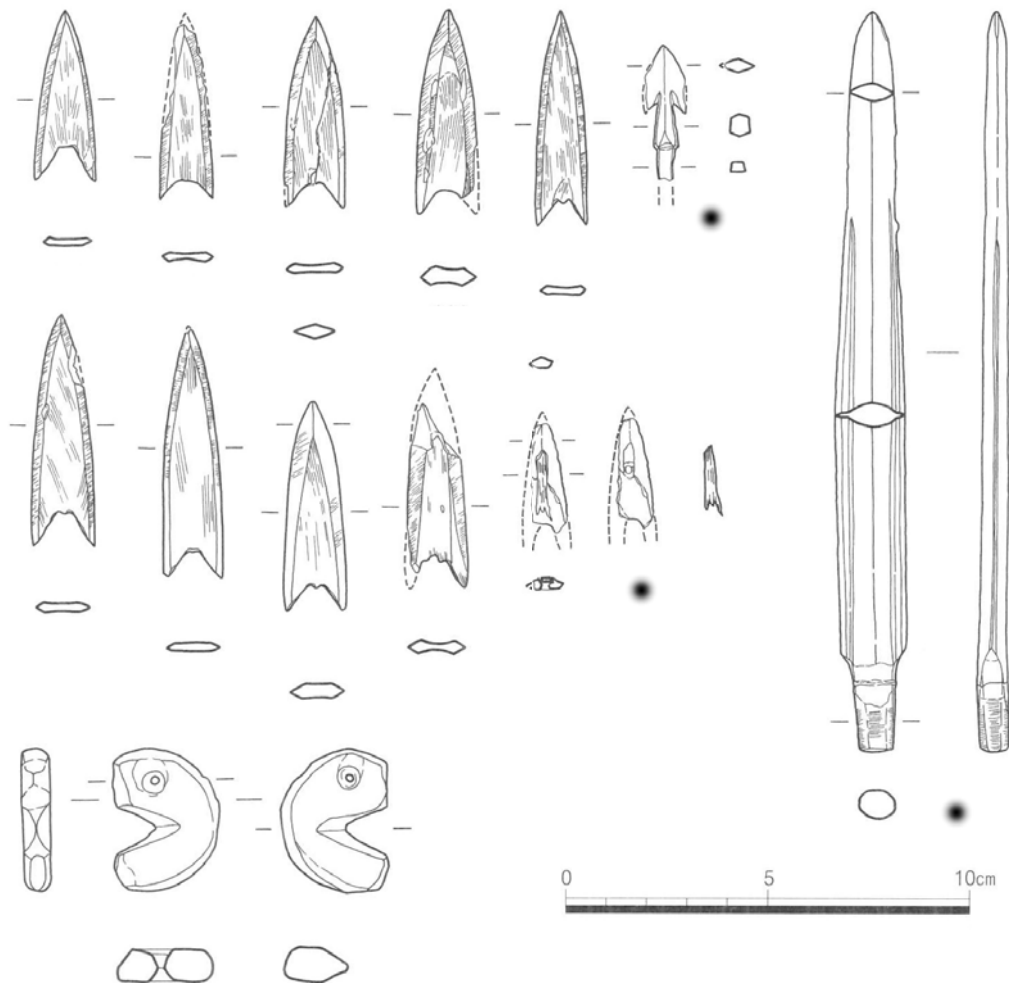
1. 靑銅器時代의 三韓 故地에 確認되는 古朝鮮係 靑銅器

우선 삼한이 성립되기 이전인 기원전 4세기 이전 청동기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필자는 청동기시대의 청동기를 기준으로 하여 前-中-後-末期로 구분한다.

전기는 周王室에서 燕이 봉분되는 기원전 11세기경으로 추정되는데, 突帶文土器와 三角灣入鏃이 사용되는 시기로 龍川 新岩里 3지점 2문화층 4호 수혈에서 출토된 刀子, 銅泡가 해당한다. 이외에 羅津 草島 무덤 출토 銅玉, 平壤 金灘里 8호 주거지 출토 銅鑿, 鳳山 新興洞 7호 주거지 출토 銅泡 등이 이 시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요령식동검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작은 소품 위주의 청동기가 발견되는 시기이다. 마한지역에서는 아직 전기에 속하는 청동기는 명확하지 않고, 변진한 지역에서는 晉州 玉房 5-D지구 출토 曲玉形 靑銅器가 이 시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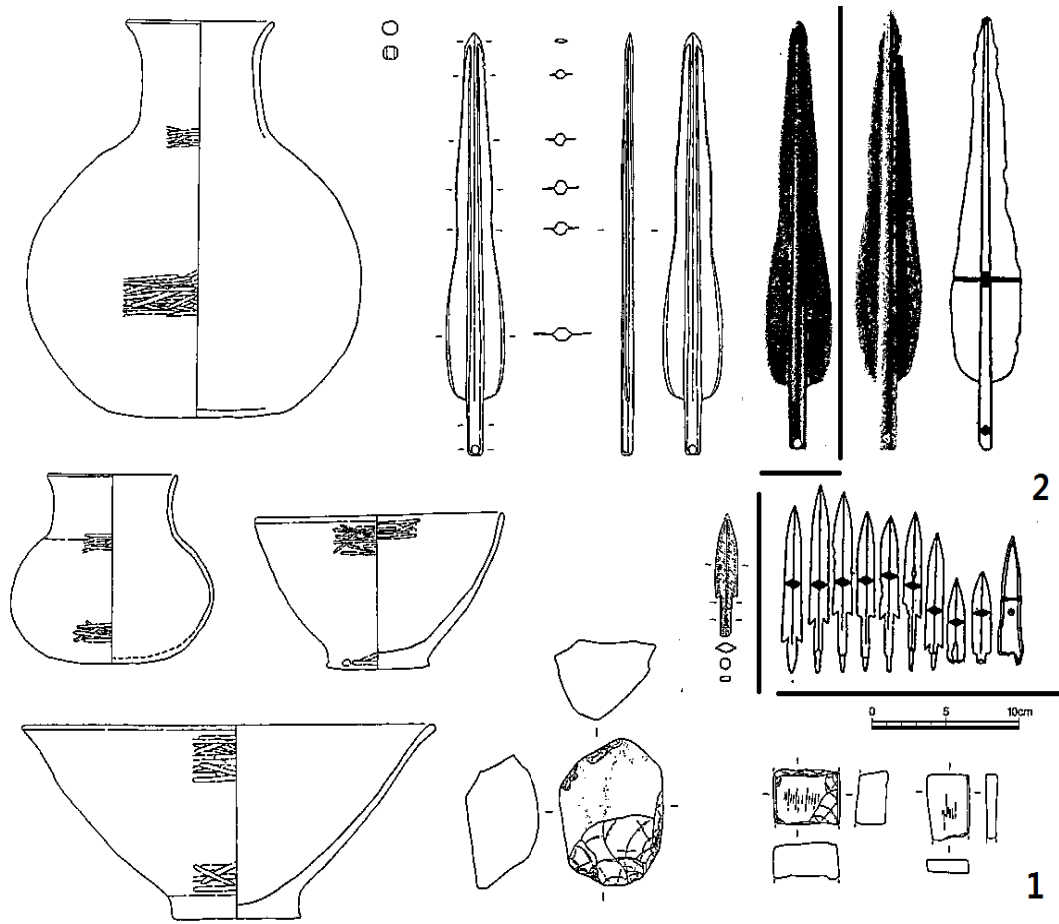
중기는 기원전 770년 중국 춘추시대의 시작 언저리로 생각되며 요령식동검이 등장한다. 토기는 二重口緣, 孔列文, 口脣刻目 등 다양한 형태이다. 石鏃은 三角灣入鏃, 二段莖式石鏃 등이 사용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청동기는 주로 무덤에서 출토되는데 廣州 驛洞 석관묘, 春川 牛頭洞 석관묘, 大田 比來洞 1호 지석묘, 舒川 烏石里 주구묘, 白川 大雅里 석관묘, 新坪 仙岩里 석관묘 출토 요령식동검 등이 해당한다. 일반적인 요령식동검과 달리 직선적인 형태나 돌기부가 발달하지 않은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동검을 異形遼寧式銅劍이라 한다.

春川 牛頭洞 석관묘에서 출토된 동검과 동촉은 이 시기 가장 주목되는 청동기이다. 이 무덤에서는 이형요령식동검과 함께 이단경식동촉, 삼각만입동촉이 출토되었다. 삼각만입동촉은 부식이 되어 잔편이기는 하지만 대략의 형태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형태의 촉은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전기를 대표하는 석촉과 유사하다. 아쉽게도 이러한 예는 현재 이 한 점 밖에 없다. 이단경식동촉은 사리원 상매리 석관묘, 강릉 포남동 주거지 등지에서 출토된 바 있는데, 가장 유사한 것은 백천 대아리 석관묘 출토품이다.



〈도면 2. 춘천 우두동 석관묘 출토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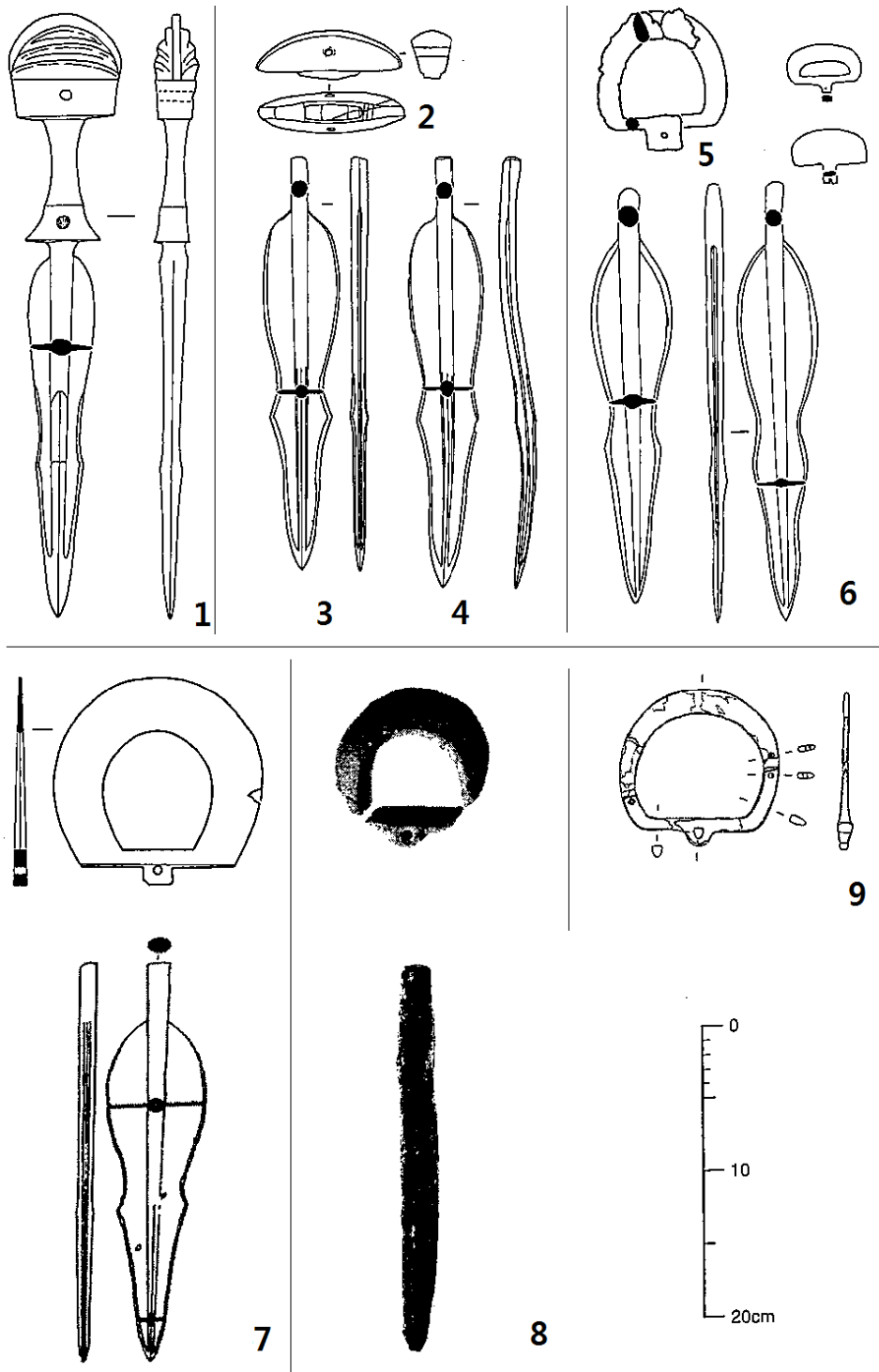
金泉 松竹里 4호 지석묘 주변에서는 땅에 박혀서 출토된 이형요령식동검이 있는데, 이것은 백천 대아리 석관묘 출토품과 형태가 유사하며, 습배 끝에 투공이 있는 점도 동일하여 주목된다. 아마도 채지의 제작품이라기보다는 고조선 등지에서 제작된 유입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1. 김천 송죽리 4호 지석묘 2. 배천 대아리 석관묘

〈도면 3. 異形遼寧式銅劍의 比較〉

金海 蓮池 지석묘 출토의 馬蹄形 청동기는 동검 손잡이 장식으로 생각되는데 寧城 小黑石溝 M7501호묘 출토 동검의 劍把頭 장식과 유사하고, 중국 崗上墓, 撫順과 한반도 廣州 驛洞 석관묘에 서도 비슷한 석제품과 이형요령식동검이 출토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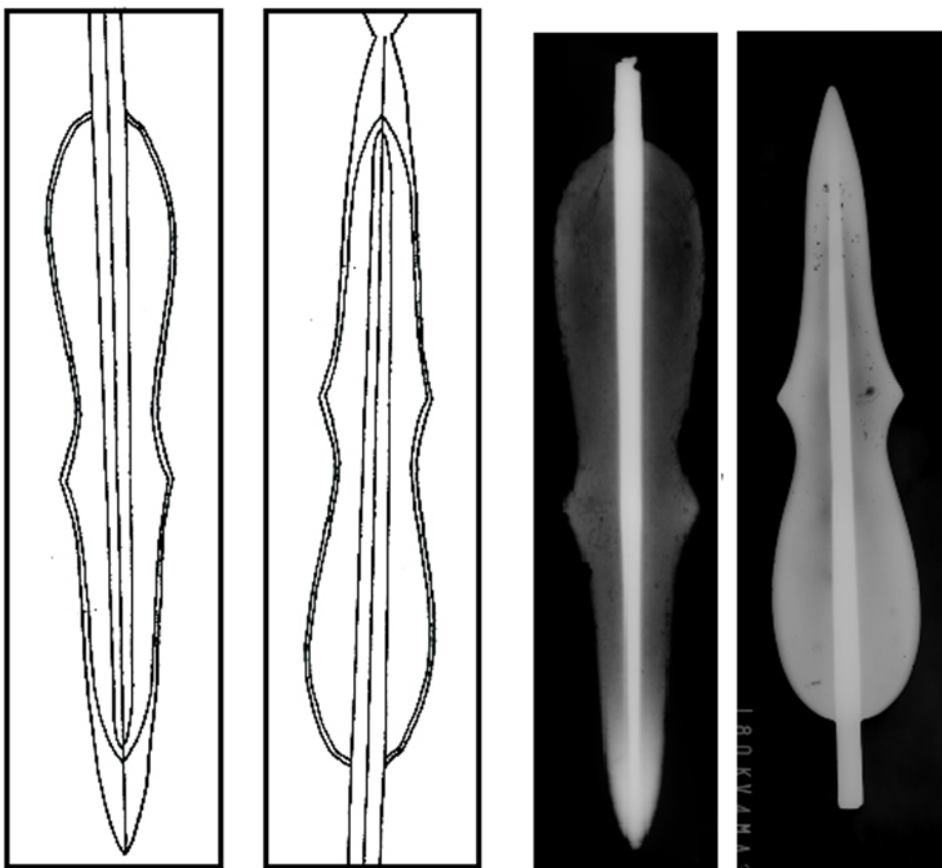


1. 小黑石溝M8501 2. 崗上M19 3. 崗上M6 4. 崗上M18 5. 樓上墓 6. 樓上M3 7. 大葫芦溝 8. 廣州 驛洞 9. 金海 蓮池 支石墓

〈도면 4. 金海 蓮池 支石墓 出土 馬蹄形 青銅器와 그 類似 事例〉

후기는 중국 戰國時代의 시작인 기원전 453년¹²⁾경부터라고 생각하는데, 비파형을 한 전형요령식동검이 사용되는 시기이다. 延安 琴谷洞, 夫餘 松菊里 석관묘 출토품이 대표적이다. 麗水 積良洞 · 月内洞, 傳 茂朱, 청도 예전동, 전 성주 출토품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平壤 表代 10호 주거지, 德川 南陽里 16호 주거지 출토 요령식동모를 비롯하여 銅斧는 거푸집이 夫餘 松菊里 55지구 8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파편이지만 형태를 유추해보면 扇形銅斧로 身部に 突線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보다는 인부의 좌우가 더 벌어진 金野 출토 거푸집도 이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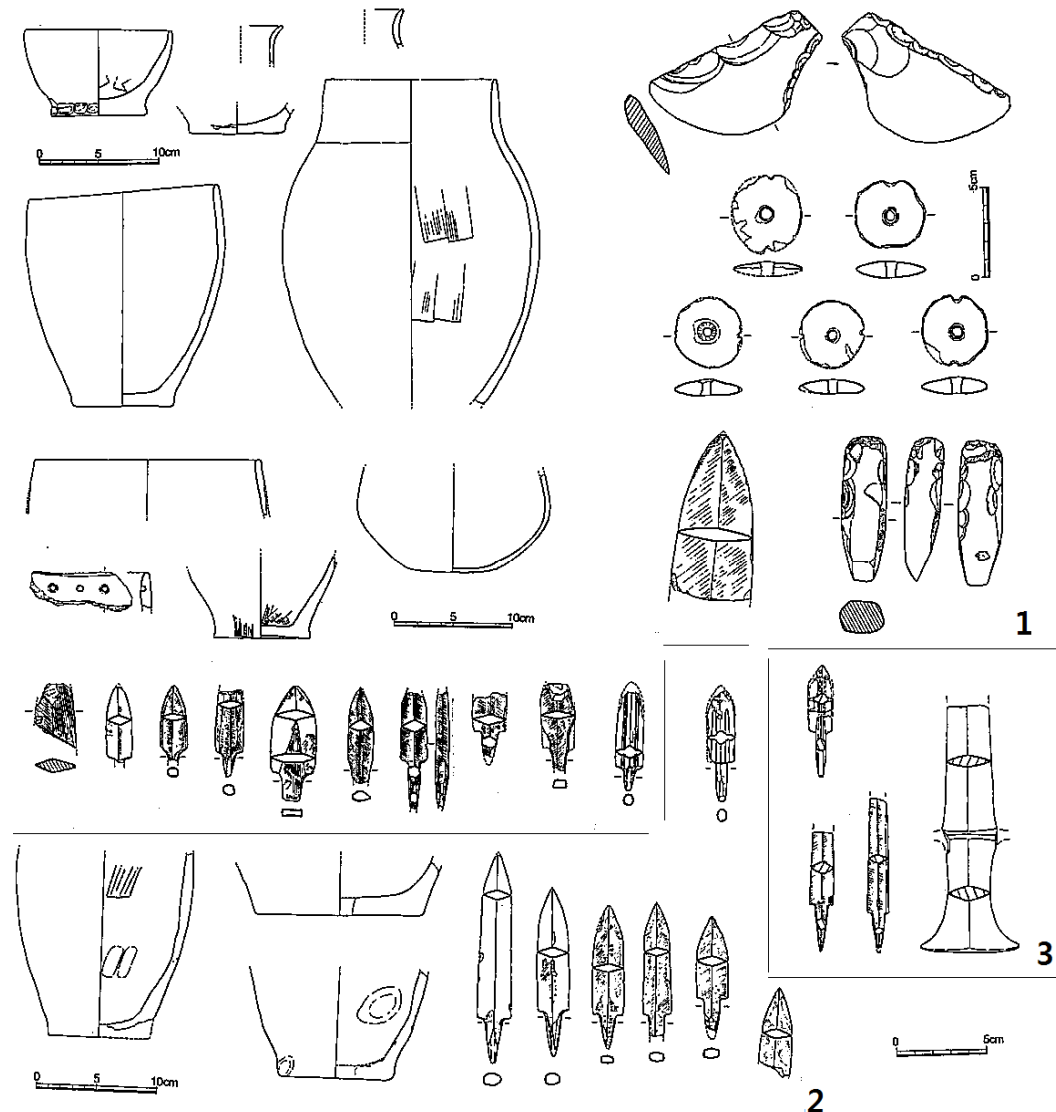
전형요령식동검 중에는 제작기법에 따라 봉부에 탕구가 있는 방식으로 제작된 동검이 확인된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까지는 한반도 남부에서만 확인되고 있지만, 고조선의 동검 제작기술과 관련 있을 가능성도 있다(李陽洙 2012). 여수 적량동 · 월내동, 청도 예전동 출토 요령식동검의 제작 방식이 이러한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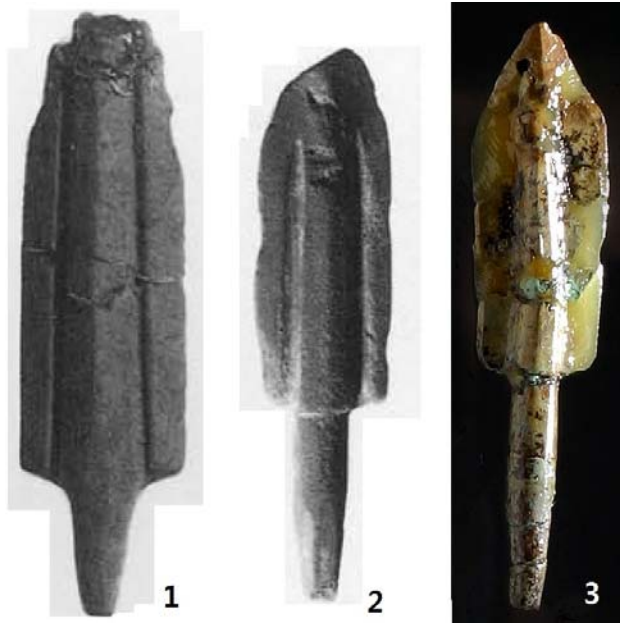


좌·부여 송국리 석관묘 출토 우·청도 예전동 출토
〈도면 5. 탕구 방향으로 본 요령식동검 제작의 두 가지 계보〉

12) 전국시대의 시작은 453년으로 보는 설과 403년으로 보는 설 두 가지가 있다. 필자는 453년 진을 삼분한 사건이 일어난 453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동축은 일단경식의 단부돌출형이 山淸 梅村里 35호 석관묘에서 출토되었다. 이런 단부돌출형석축은 신평 선암리 석관묘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居濟 鵝州洞 13호 지석묘 출토의 동축은 蔚山 檢丹里 13·39호 주거지 출토 석축과 유사하여 석축과 동축의 제작이 상호 디자인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유사하게 안면도 고남리 출토 골축 중에는 석축과 동일한 형태를 한 것이 있는데, 이는 재질과 관련없이 석축 간에 디자인을 공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 울산 검단리 13호 주거지 2. 울산 검단리 39호 주거지 3. 거제 아주동 13호 지석묘

〈도면 6. 銅鑑을 模倣한 石鑑의 例〉

전국 燕과 고조선이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경쟁하는 기원전 4세기 대를 전후로 한반도에서 한국식동검이 등장하게 된다. 한국식동검 역시 變形遼寧式銅劍 중의 하나의 계보로 생각되는데, 한반도 내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粘土帶土器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한국식동검을 제외한 변형요령식동검은 价川 龍興里, 平原 新松里, 載寧 孤山里, 平壤 新成洞, 金泉 文唐洞 등지에서 출토되었는데 이형요령식동검과 형태적으로 유사하여 구분이 쉽지 않다. 다만 동반된 유물을 볼 때,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개천 용흥리에서는 퇴화형의 刀子와 함께 출토되었으며, 평양 신성동 석관묘에서는 多鈕雷文鏡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김천 문당동 목관묘에서는 黑色磨研長頸壺, 斷面圓形粘土帶土器 등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흑색마연장경호는 大田 槐亭洞 출토품과 유사하다. 이 시기에는 동검을 재가공한 동촉 등이 주목되는데 金海 茂溪里 지석묘 출토의 동촉 4점은 손잡이가 장대화된 석검과 함께 출토되었다. 昌原 鎭東里 석관묘에서는 직선적으로 날이 재가공된 동검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것이 金海 新文洞 1호 석관묘에서도 출토되어 변한의 고유한 형태임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慶州 奉吉里 출토 동검은 지표 수습품이기는 하지만 기부의 양쪽에 구멍이 뚫려있는 점은 昌原 德川里 16호 지석묘 출토품과 유사하며, 이렇게 기부에 구멍이 뚫린 예가 한국식동검에는 없는 점을 근거로 요령식동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소형 동검도 봉길리 출토품과 유사하게 등대가 발달하지 않았으며, 검엽도 두께가 얇고 전체적으로 소형이다. 이러한 동검은 진한의 특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三韓 成立期에 確認되는 古朝鮮係 靑銅器

청동기시대 말기는 한국식동검기, 즉 삼한의 등장과 거의 동일시기라고 생각된다. 역연대로 고조선이 稱王을 하고 전국 燕과 긴장관계를 이루는 기원전 4세기 언저리부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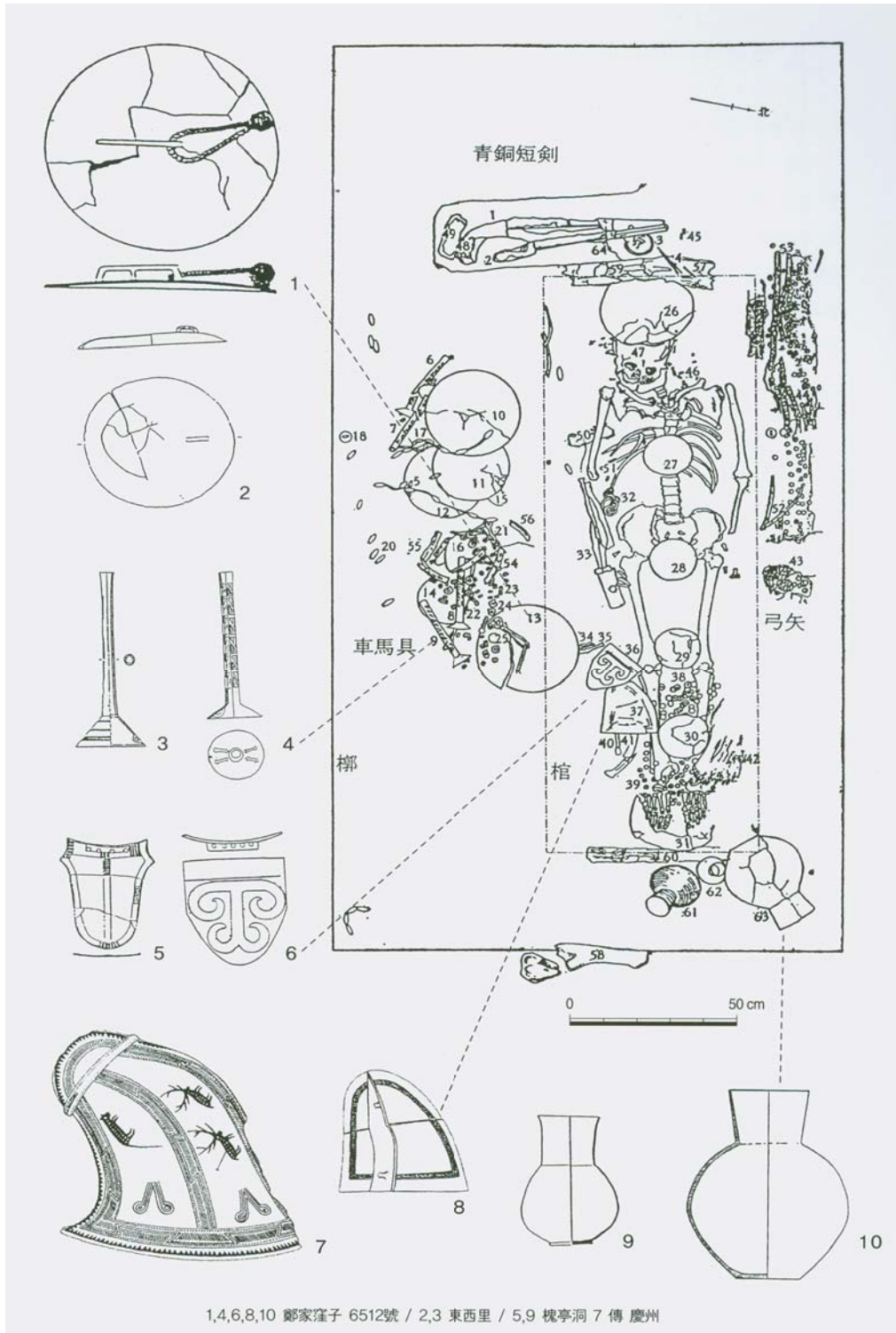
三韓時代인 한국식동검기가 되면 마한의 錦江유역에서 청동기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 특히 大田 槐亭洞, 牙山 南城里, 禮山 東西里 출토의 劍把形銅器, 喇叭形銅器, 防牌形銅器 등은 중국 沈陽 鄭家窪子 6512호묘 출토품과 동일계보에 있는 것으로 고조선의 청동기임이 분명하다. 변진한의 경우 慶州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견갑형동기가 沈陽 鄭家窪子 6512호묘의 계보에 속하는 것이다.

특이하게 검파형동기는 정가와자6512호묘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그 원류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寧城 小黑石溝 85NDXIM2 · M8501 · 92AIIM11 · M9601호묘, 朝陽 魏營子 7101호묘, 建平 炮手營子 881호묘 등지에서 출토된 當壚와 형태적으로 유사하여 이것에서 변화한 것이라는 의견이 주목된다(허준양 2013).



①대전 괴정동 ②예산 동서리 ③아산 남성리 ④小黑石溝 M8501 ⑤小黑石溝 92AIIM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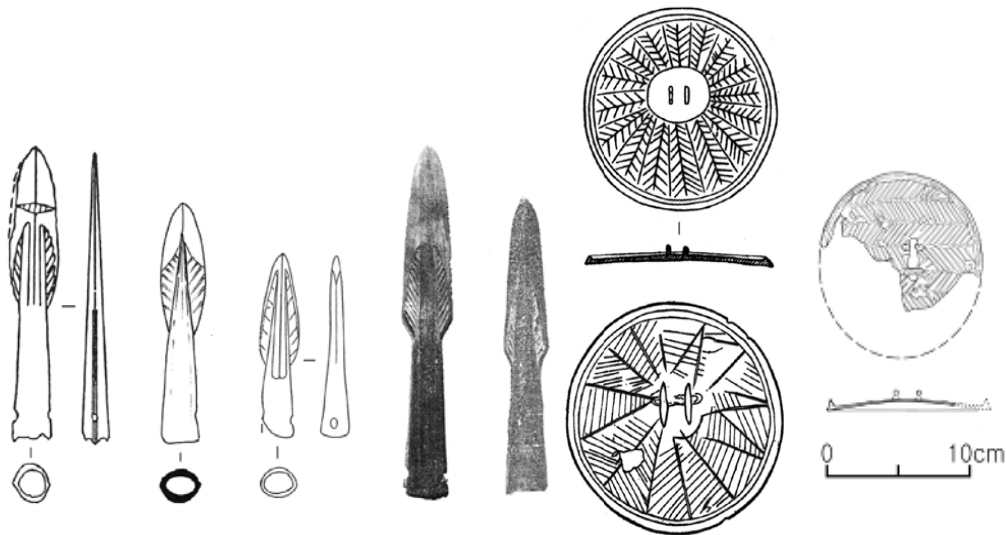
〈도면 7. 검파형동기와 그 비교자료〉



〈도면 8 . 古朝鮮의 靑銅祭器-沈陽 鄭家窪子 6512호묘 出土品과 類似 資料〉

이외에 多鈕粗文鏡이 고조선과 관계가 있다. 大同江流域에서는 成川, 中和 등지에서 다뉴조문경이 출토되었으며 孟山에서 거꾸집이 출토된 바 있다. 먼저 성천 출토품은 별무늬형태로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화 출토로 전하는 다뉴조문경은 맹산 출토로 전하는 거꾸집과 문양이 유사하지만 맹산 거꾸집에만 蕨手文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문양을 가진 실물은 湖巖美術館 소장품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무늬가 달라 같은 거꾸집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외에 중화 출토품과 유사한 것이 高興 小鹿島 매납유구 출토품이 있다.

최근 益山 五龍里5-2호묘에서는 엽맥문을 가진 다뉴조문경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엽맥문은 本溪 劉家哨, 寬甸 趙家堡·四平街, 集安 五道嶺溝門 등지에 동경 혹은 동모에 시문되어 출토되고 있다. 특히 집안 오도령구문에서는 고구려 적석총의 시원적인 형태의 무덤에서 출토되어 엽맥문이 고구려 초기세력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 때문에 익산으로 이러한 엽맥문 동경의 유입 이유가 주목된다. 또한 엽맥문 동모의 경우 무기에 문양이 시문되는 최초의 사례로서 이후 동과 등에 무늬가 들어가는 것에 시원이라 할 수 있다.



①劉家哨 ②趙家堡 ③四平街 ④⑦五道嶺溝門 ⑤赤柏松古城 ⑧오룡리 5-2호묘

〈도면 9. 엽맥문 관련 자료〉

이외에 러시아 沿海州의 이즈웨스트프와 쉬코토프카에서도 다뉴조문경이 발견되고 있다. 이 지역의 정치체를 고조선과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렵지만 옥저 등과 연관될 것으로 생각된다.

IV. 古朝鮮 靑銅器 製作技術의 系譜

고조선의 왕은 청동기를 제작, 소유, 분배 등을 조정하는 지배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제작 기술을 통제함으로써 주변과 세력 균형을 맞추고 교역, 교섭을 진행하였을 것이다.

한반도 남부에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고조선 관련 청동기는 청동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이형요령식동검과 이단경식동촉이다. 동촉의 거푸집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遼陽 二道河子 1호 석관묘와 西豐 誠信村 석관묘에서 출토된 바 있다. 이것들을 석관묘 출토품, 동부와 석촉의 조합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동촉의 제작기술에서도 봉부쪽으로 주입구가 만들어져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화살의 날개 끝부분까지 잘 주조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러한 주입구 방향은 앞서 언급한 요령식동검의 제작기술 중 B식 동검-봉부 방향에 탕구-의 제작기술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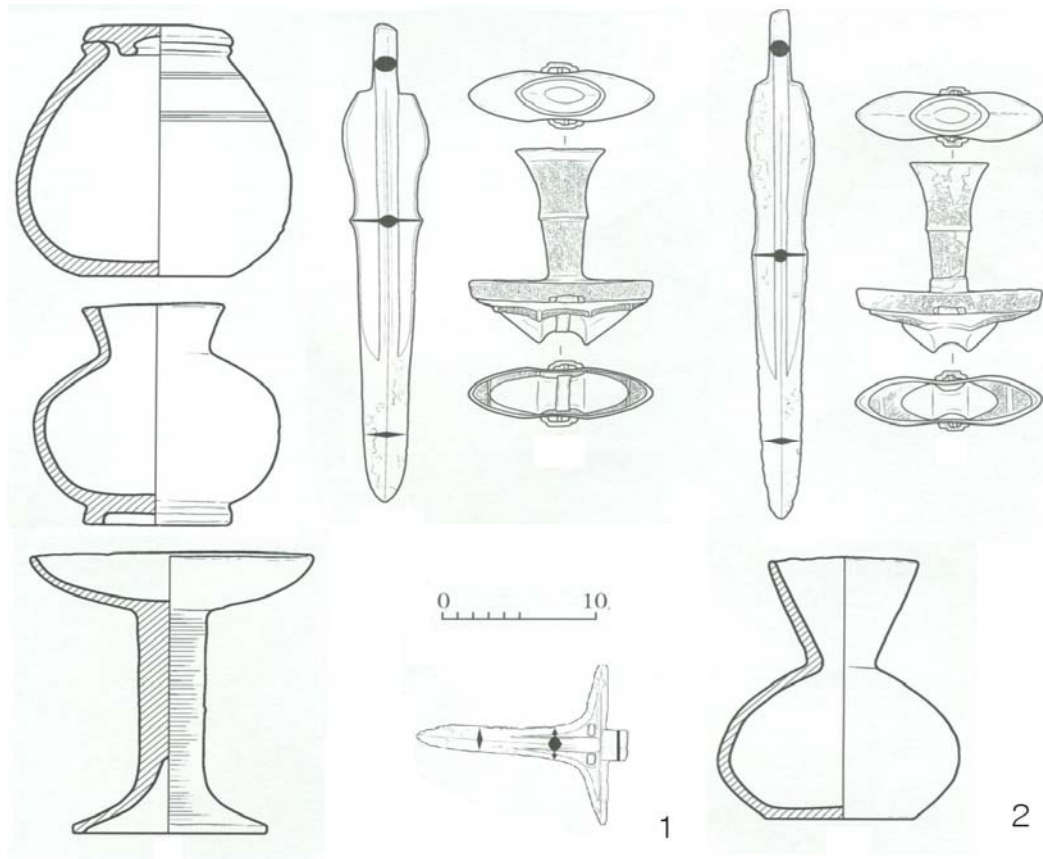
주목되는 점은 西豐 誠信村 석관묘 출토 동촉은 이단경식이며, 遼陽 二道河子 석관묘 출토품은 일단경식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남부의 석촉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당연히 西豐 誠信村 석관묘 출토품이 고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중국 동북지역 연구자들은 遼陽 二道河子 출토품을 고식으로 생각한다. 그 원인은 요령식동검에 있는데 西豐 誠信村 출토의 요령식동검은 쌍방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돌기부가 발달하지 않은 이형이다. 이에 반해 遼陽 二道河子 출토품은 십이대영자 문화에 속하는 전형적인 것이다. 필자는 한반도의 동검의 변화가 이형요령식동검에서 전형요령식동검으로 발전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이형요령식동검이 쌍방유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하는 전형요령식동검은 가장 출토빈도가 높은 곳이 여수반도이다. 이 지역은 필자의 B식 요령식동검 제작의 중심지로 추정된다. 다만 한국식동검 초기형태가 근처에서 발견되지 않는 점에서 이후 청동기 제작의 연속성이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시기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동촉이다. 동촉은 일단경식의 단부돌출형이 산청 매촌리 35호 석관묘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거제 아주동 13호 지석묘 출토의 동촉은 울산 김단리 13·39호 주거지 출토 석촉과 유사하다. 울산 김단리 13·39호 주거지 출토 석촉은 일반적인 석촉과 달리 혈구를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동촉에서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석촉은 이 지역에서 직접 제작되었을 것을 추측할 수 있지만, 동촉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동촉은 다른 지역에서 출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혈구를 가지는 형태의 동촉 역시 변진한의 고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청동기시대 말기가 되면 재지화된 동검이 출현하는데, 마한, 변한, 진한에 차이가 있다. 먼저 마한에서는 대전 괴정동 분묘에서 보이듯이 결입부를 가지는 한국식동검이 주류를 이룬다. 예산 동서리에서는 8점의 동검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에는 결입부가 형성되지 않은 요령식동검이 포함

되어 있다. 이 동검과 유사한 사례는 建昌 東大杖子 M20호묘, 旅順 後牧城驛 3호 석관묘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建昌 東大杖子 M20호묘에서는 한반도와 관련이 깊은 요서식동검과도 함께 동반하고 있어 주목된다. 결국 마한의 한국식동검은 선학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요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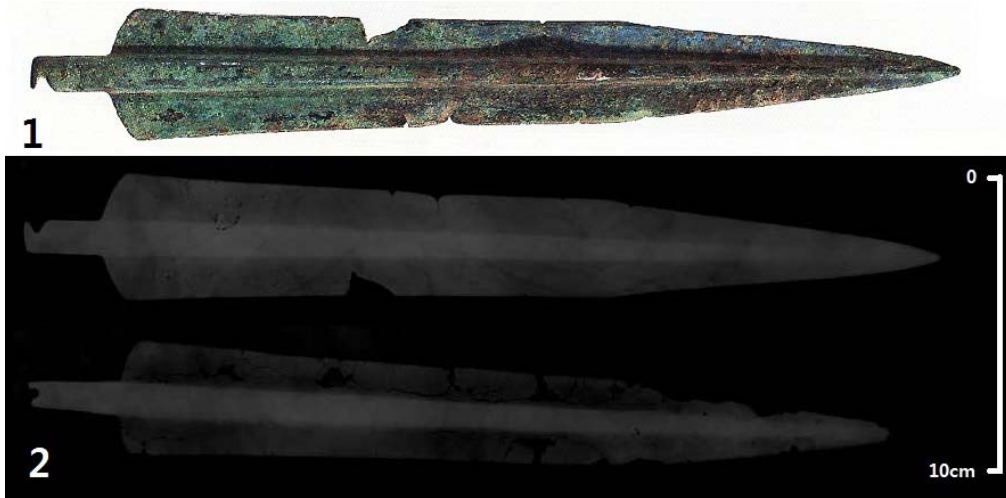


1. M20호묘 2. M23호묘

〈도면 10. 建昌 東大杖子 무덤 출토 유물〉

이에 반해 변한에는 창원 덕천리 16호 지석묘, 泗川 梨琴洞 C-10 · D-4호묘 출토품과 같이 부러진 동검을 재가공한 듯한 것이 출토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예는 서남해안의 麗水 積良洞 · 鳳溪里 · 五林洞 등지에서 자주 확인되는 것으로 그쪽과 관련성이 깊다. 두 번째는 창원 진동리 출토 동검과 같이 날이 직선적으로 재가공되는 것이다. 물론 이 동검은 원래의 형태가 여수 월내동 출토품과 같이 전형적인 비과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磨製石劍의 영향으로 직선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동검이 최근 김해 신문동 1호 석관묘에서도 출토된 점에서 이 지역에서 재지화된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김해 신문동 1호 석관묘 출토 변형요령식동검은 진동리

출토품과 달리 재가공이 아닌 처음부터 이러한 세장한 형태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중국 동북지역의 무순에서 유사한 출토사례가 있으며, 대동강유역에서도 장진리, 전 평양 출토품이 알려져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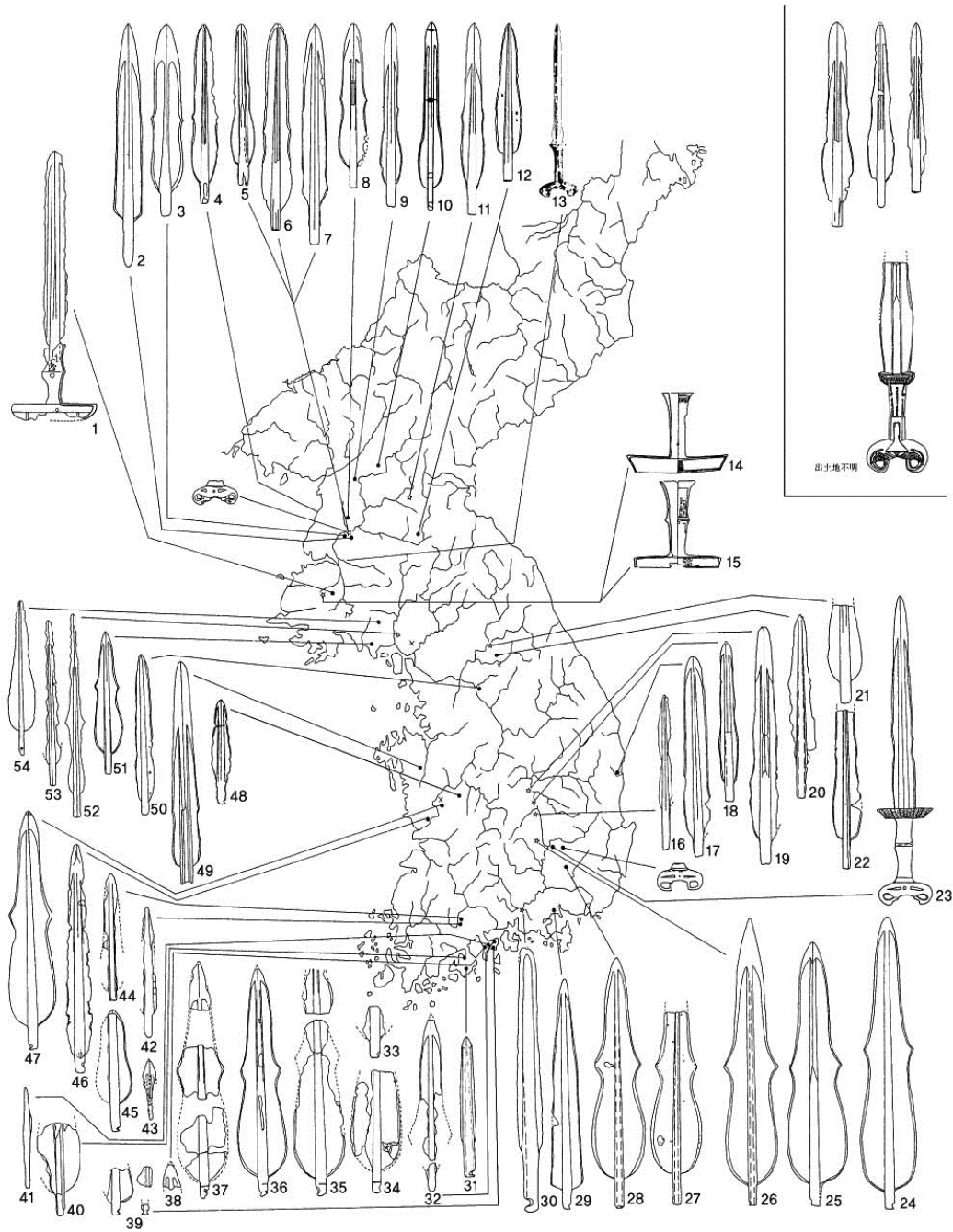


1·2 창원 진동리 3. 김해 신문동 1호 석관묘
〈도면 11. 鎭東里式 銅劍〉

진한에서는 김천 문당동 목관묘 출토품과 같이 용흥리식의 변형요령식동검이 확인된다. 이외에 경주 봉길리 채집품으로 알려진 동검이 있다. 동검은 길이가 짧고, 등대의 폭이 좁아 전형적인 요령식동검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동쪽으로 전시되기도 한 유물로 이러한 형태가 경주-진한의 재지적 동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형태의 동검은 현재로서는 대동강유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점에서 이러한 동검의 제작은 고조선에서 직접적인 이전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1.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2. 경주 봉길리 채집
〈도면 12. 奉吉里式 銅劍〉



1.孤山里 2.將進里 3.石巖里 4.平安南道 5~7.平壤 8.西浦洞 9.龍興里 10.義州郡 泰山里 갈골 11.成川 12.仙巖里 13.樂浪郡 14·15.信川 16.今鳥山 17.沙川洞
18.善山 19.洛東里 20.芳良里 21·22.春川 23.비산동 24·25·26.星州 27·28.禮田洞 29.鎮東里 30.晉州 31·40.雲岱里 32~37.精良洞 38.鳳溪里 39.五林洞
40.雲岱里 41.平呂里 42~43.덕사리 44~45.牛山里 46.岩樹里 47.松菊里 48.비래동 49.東西里 50.上柴浦里 51.琴谷洞 52~53.解坪里 54.大雅里

〈도면 13. 한반도 요령식동검의 분포〉

청동기시대 말기 변형요령식동검이 제작되는 시기부터 삼한에서는 동검을 제작하기 시작하고, 그 배경에는 전국 연과 대등할 정도로 세력이 성장한 고조선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고조선의 성장은 청동기제작기술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고 그 기술이 한반도 남부로도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삼한의 성장에 있어서 고조선은 큰 역할을 하였고 그 증거로 청동기의 製作技術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삼한에서 재지적인 청동기의 출현의 증거는 청동기시대 중기에 속하는 춘천 우두동 석관묘 출토 동촉이다. 이 무덤에서는 이형요령식동검이 출토되는 바, 고조선 청동기문화-쌍방 출토 요령식동검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후기에는 거제 이주동 13호 지석묘 출토 동촉과 울산 검단리 주거지 출토 석촉의 형태적 유사성을 근거로 한반도 남부에서도 청동기 제작이 시작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재지적인 동검의 출현은 청동기시대 말기부터이다. 청동기시대 말기는 삼한시대 전기전반과 겹치는 시기로 마한에서는 괴정동식, 변한에서는 진동리식, 진한에서는 봉길리식으로 재지적 동검이 구분된다. 이런 동검은 중국 동북지역이나 한반도 북부에서도 유사한 것들이 확인되고 있어 삼한과 고조선이 동검 제작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재지적인 동검들이 가장 발전된 기술력을 가진 마한의 청동기로 통일화된다.

결국 삼한이라는 정치체는 청동기를 바탕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바탕에는 고조선의 청동기라는 기술이 있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 金元龍, 1989, 『韓國考古學概說』, 一支社
 김정학, 1990, 『한국상고사연구』, 범우사
 노태돈, 2004, 「왜 고조선인가」 『고조선·단군·부여』, 고구려연구재단편
 미야자토 오사무(宮里修), 2010,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전개』, 사회평론
 朴辰一, 2013, 『韓半島粘土帶土器文化研究』, 釜山大學校博士學位請求論文
 박준형, 2012,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청구논문
 송기호, 2003, 「서평:송호정 저,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역사교육』87
 申敬澈, 1995, 「三韓·三國時代의 東萊」 『東萊區誌』, 東萊區廳
 吳江原,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 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출판사
 吳江原, 2013, 「청동기~철기시대의 요령 서북한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동양학』53,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李健茂, 1992, 『韓國의 靑銅器文化』, 國立中央博物館·國立光州博物館 特別展示圖錄
 李陽洙, 2003, 「支石墓社會에서 木棺墓社會로-弁·辰韓의 社會發展-」 『弁辰韓의 黎明』, 國立金海博物館
 李陽洙, 2010a, 『韓半島 三韓·三國時代 銅鏡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請求論文

- 李陽洙, 2010b, 「다뉴벼문경의 제작기술과 사회-일본 교토국립박물관 · 고려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35, 湖南考古學會
- 李陽洙, 2012, 「당구의 위치로 본 요령식동검의 제작기술과 의미」 『고고광장』 11, 부산고고학연구회
- 李在賢, 1995, 「弁辰韓 社會의 발전과정 -木槨墓의 출현배경과 관련하여-」 『嶺南考古學報』 17.
- 李昌熙, 2010, 「점토대토기의 실연대」, 『文化財』 第43卷 第3號
- 李清圭, 2003, 「고조선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한국 고대사속의 고조선사』(송호정, 푸른역사, 2003)에 대한 비평-」
『역사와 현실』48.
- 李清圭, 2005, 「청동기를 통해 본 고조선과 주변사회」 『북방사논총』 6
- 沈奉謹 · 朴恩貞, 1982, 「韓國 靑銅劍 系譜와 그 同伴遺物」, 『韓國上古史學報』 10, 한국상고사학회
- 趙鎮先, 2010,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한국고고학회, 2011, 『한국 고고학강의』, 사회평론
- 허준양, 2013, 「검과형동기의 제작기법」 『아시아주조기술사학회 연구발표자료집』 7, 아시아주조기술사학회